

2024년 2월 11일(주일) 제1669호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기도가 먼저라!

제4대 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회 시작

2월 17일(토) 새벽기도회 후

교회는 제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첫 시작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제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청빙 기도회'를 2월 17일 토요일 새벽기도회 후에 시작하며 매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회원은 전원 참석하며, 안수집사, 권사는 물론 청년부까지 우리 교회 4대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를 원하는 성도들은 누구나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2024 상반기 장학생 선발

신청 마감 : 2월 16일(금)까지 / 사무국으로

서울교회 장학회(회장:오윤걸 장로)는 2024 상반기 장학생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장학생은 신앙생활에 모범적이며 교회봉사와 청년부에 출석 중인 대학생으로 봉사부서와 청년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또는 신앙 간증문,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를 2월 16일(금)까

지 교회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부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장학금 수여식은 2월 25일 저녁 찬양예배 시에 있을 예정이며, 선발된 학생은 전원 참석하여야 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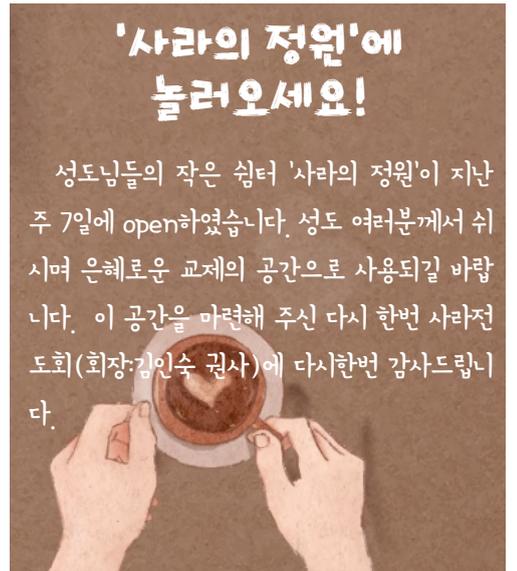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1가정1선교사 후원

정현구·최복희(1) 백도환·석춘희(1/2) 박수옥(1/2) 장윤기·노애리(1) 장해라(청소년구좌) 장해운(청소년구좌)



정정 기사

지난 주 비전트립 23년의 역사 기사에서 우리 교회는 9개국에 15회에 걸쳐 파송하였다고 하였으나 2015년과 2016년에는 동계 비전트립팀을 구성하여 미안마로 파송하였기에 총 10개국에 17회에 걸쳐 파송하였으므로 정정합니다.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오원준 감정헌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김예준 김재용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김정균 소령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지난주 찬양예배 시 2024 청년부 필리핀 비전트립 파송식이 있었습니다. 준비한 모든 사역을 은혜롭게 진행하고 귀국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헌신과 반역

(막 14:1-11)



손달익 위임목사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으신 분이심을 수없이 강조합니다. 요한 복음에만 '보내신 이, 보내신 분, 보내신 아버지' 등의 표현이 39회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 6:38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신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과 대응들이 있었습니다.

1. 거절과 반대

"이들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흥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1절). 이때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십자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계시던 때였습니다. 주님은 공생애 3년간 충분히 말씀하셨고 가르치셨고 그의 사랑과 능력과 진심을 다 나타내셨습니다.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증거들을 충분히 나타내셨지만 주님을 가장 잘 알아보아야 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를 흥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확실한 증거 앞에서 도무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수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 첫째는 오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심은 유대의 정치적 독립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메시아 시대의 조건으로 보았는데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성전을 헐라'는 과격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폭력을 반대하는 등의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는 메시아 시대를 지연시킨다.'는 오해를 증폭시켰고 그래서 죽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의 논리와 증거와 성경의 가르침이 너무나 분명했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은 무지막지한 반대와 거절로 하나님의 사역에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기와 질투심입니다. 유대인들의 반대와 예수님께 대한 살해의 음모에는 성전을 장악한 그들이 차지한 막대한 이권과도 깊은 연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 무지와 분별력 부재에서 오는 오해, 자신의 무능을 숨기고 종교권력을 독점하고 싶은 기득권자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세속적 이권과 관련된 욕심 등이 반대와 거절의 편에 그들을 서게 했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자기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때문에 명백한 진리 편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사역에 저항한다면 이는 결국 파멸하게 될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한 일입니다.

2. 반역에 가담한 사람

본문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한 여자의 가룩한 헌신이 소개됩니다. 베다니 마을의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예수님께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부어 바쳤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가롯 유다는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지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매우 총명하고 사리판단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이 바친 향유를 보고 가롯 유다는 그것이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능력과 재주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돈궤를 맡기셔서 재정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직분도 재능도 신뢰도 모두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

으로 악용했습니다. 주님 곁에서 말씀을 배우고 거룩한 뜻을 분별하고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헌신할 생각은 없고 오로지 자기 이익을 채우는 것에만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했고 마지막에는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주는 파렴치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배반의 무리에 합류합니다. 중세교회를 타락시킨 가장 큰 원인은 성직자들의 탐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 거래했습니다. 심지어 성직을 매매하고 고위직 성직자들은 뇌물을 받고 성직자들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돈을 받고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 판매가 전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모두가 가롯 유다의 후예들입니다. 성경도 불의한 소득을 거절할 것과 낭비하지 말 것과 선한 일에 인색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은 욕심을 멀리하는 것에 있습니다.

가롯 유다도 다른 사도들처럼 거룩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 생명을 주님께 바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배신의 자리에 이르게 한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이 거짓을 낳고 양심의 마비를 낳고 후안무치한 인면수심이 되게 했고 결국은 돈과 함께 그 자신도 망했습니다. 불의한 소득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탐심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버려야 합니다.

3. 영원히 기념되는 헌신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에서 반복될 수 없고 반복될 필요도 없는 오직 한 번의 역사일 뿐입니다. 이 역사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원한다고 해서 그 시기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회를 상실하지 않고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 헌신한 그 여자를 칭찬하셨습니다. 동시에 더 중요한 일은 그 가치의 비교불가능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고 축복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돕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매우 가치 있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행위를 극찬하시고 우리 삶의 모델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지닌 일이 있는데 곧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대속의 사역입니다. 십자가의 대속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절대 타락한 존재이며 절대 무능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제와 돌봄이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고귀한 선물이지만 그것으로 사람이 구원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비교불가능의 가치를 지닌 완전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에 참여한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세상 모든 곳에서 기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고치는 것도 세상의 이념에서 그 능력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20세기 전쟁의 세기를 마치면서 전쟁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다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말씀에서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는 말씀처럼 참담한 일입니다. 세상을 고치는 능력,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도 오직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선한 일에 힘쓰되 더욱 복음의 사역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목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목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진리를 분별하고 진실을 따르며 인간의 욕심 때문에 배신과 거절의 대열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에 전심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 도리입니다. 복음만이 비교불가능의 가치와 능력이며 나와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진리임을 깨닫고 이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옥합을 깨뜨리고 가장 고귀한 향유를 바쳐야 합니다.



경계와 울타리를 허물고



김대훈 안수집사
(중등부 부감)

이번 중등부 겨울수련회는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으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라는 주제로 2월 2일(금)-3일(토) 1박 2일은 아가페 타운에서 2월 4일(주일)은 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초등부를 졸업하고 중등부가 아직 낮은 중학교 1학년 새내기들과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와 거리두기와 같은 비대면 습관이 남은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은 이번 겨울수련회를 통해 서울교회 중등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경계와 울타리를 허물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마음을 간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중등부 겨울수련회에서 중등부 학생들은 눈썰매장에서의 눈싸움, 청년부가 인도한 저

녁 찬양집회와 이어진 중등부만의 기도회, 다채로운 반별 활동을 통해 그리고 촛불 아래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을 열고 나누며 교제하였습니다. 특히 저녁 기도회에서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자신의 기도제목과 손모양을 따라 그린 용지를 벽에 붙이고 학생들은 벽에 붙은 용지에 그려진 친구들의 손모양에 손을 겹쳐 중보기도와 마니또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교회 공동체에 예비하신 축제의 자리에 함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만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성장하는 서울교회의 미래 중등부 학생들이 이번 겨울수련회에서 친구들과 나누는 소중한 순간들이 마음속에 오래오래 기억되어 인생의 힘이 되기를 기원하고,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가 나의 신앙으로 자리잡아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좋은 교회란 무엇인가?

김성경 성도 (청년부)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한 '2024 청년부 겨울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2월 2일(금) 여는 예배를 시작으로 청년들이 힘을 합쳐 다양한 미션 게임을 풀어가며 청년 1, 2부가 서로를 알아가고 하나가 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련회의 꽃인 저녁 집회에서 다양한 악기가 갖춰진 밴드의 풍성한 소리로 중등부와 연합하여 찬양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중등부 친구들과, 청년들의 들뜬 마음과 은혜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왔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기도 하였지만, 서로가 눈치 보지 않고 다 같이 울동하며 신나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원했던 찬양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며 '하나님을 의심하다?!'라는 주제가 '자극적이진 않을까?'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손달익 목사님의 말씀 속에 많은 경험과 아픔이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 과

정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현종필 목사님의 특강 시간에 '교회'라는 주제로 청년들과 이야기 나눠보며 '좋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어려웠지만, 상처 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나와 위로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서울교회가 되는 제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며 '오픈 마이크'라는 활동에서 한 명씩 앞으로 나와 이번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와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청년부 임원이 되어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한 만큼 청년 한분 한분의 간증 속에 임원단을 향한 감사들이 너무 감사했고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개개인의 질문에 응답해 주시며 은혜 속에 마칠 수 있게 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임대중 안수집사
(초등부 부장)

살렘! 2024 초등부 겨울성경학교는 갈수록 믿음을 잃어가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보여준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은 어떤 모습일지 배워보고자 합니다.

성경학교를 준비하기 위해, QT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기 위해 학원 스케줄부터 먼저 체크해야 하는 요즘의 아이들에게 짧은 기간이지만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시간을 이번 초등부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제공하고자 합니다.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서울교회 초등부에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

름을 송축하는 아이로, 어떠한 상황과 여건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아이로, 세상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아이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가장 높은곳에서 가장 낮은곳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아는 아이로,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는 지식을 앞세우기 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아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아이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서울교회 초등부에서는 아이

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사역팀, 최종국 목사님 인도로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 더욱 풍성해진 크로스찬양대와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한 성경통독과 QT 나눔 (매주 주일 저녁 9시) 등 말씀으로 은혜받은 아이들이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서울교회 초등부 겨울성경학교에 성도님들의 자녀와 손자, 손녀를 초대합니다.

- 일시: 2월 23일(금)-2월 24일(토)
- 주제: 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1)
- 장소: 서울교회



2024 사랑부 겨울수련회

사랑부 겨울수련회를 기다리며



이난희 권사
(사랑부 부장)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33-34)

지난 세월 서울교회가 겪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이 시간까지 사랑부를 사랑하시어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이 열악한 속에서도 굳센 믿음과 성실하고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랑부 학생들, 이제는 공성광 집사님 외 두 명의 집사님을 배출한 사랑부를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사랑부 행사인 올해의 겨울수련회가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복”(마태복음 5:1-12) 이라는 주제로 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진

행됩니다.

이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시는 양정호 목사님과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사랑부 학생들이 함께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여 2024년도에는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각자의 달란트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부흥하는 사랑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 건국론



신탁통치 반대 집회



김규식



한경직 목사



김재준 목사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

1945년 한국은 외세의 힘에 의존해 해방되었다. 준비되지 않은 해방은 분단으로 이어졌다. 두 강대국, 소련과 미국의 진주로 한반도는 냉전체제의 상징적인 공간이 되어야 했다. 한국인들은 소련과 미국의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어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대체로 기독교 계열은 신탁통치를 반대하였고 사회주의 계열은 신탁통치를 찬성하였다.

임시정부의 주역이었던 기독교 민족지도자들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새로운 국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당시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던 지도자들은 모두 새로운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보았다. 김구는 '경찰서 열보다 예배당 하나 세우는 것이 낫다'며 새로운 나라를 '성서 위에 세우고 우리는 하나님의 국민이 되어 서로 잘 살자'라고 말했다. 김규식은 '우리나라 건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을 것이기에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자'고 말하며 기독교의 바탕 위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승만 역시 "만세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이 나라를 세우자"라고 연설하였다. 이들은 진정한 강국은 종교로 교화된 도덕적이고 문화적인 나라이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라 생각했다.

당연히 한국교회도 기독교의 신앙 위에 세워지는 나라를 꿈꾸었다. 초기부터 한국교회에는 신앙과 애국이 분리되지 않는 전통이 있었기에 교회가 건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적 건국이념을 제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런 기독교 건국론을 설파한 대표적인 인사는 김재준과 한경직으로 이들은 탁월한 외교적·정치적 감각을 갖춘 미국·캐나다 유학파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반공주의 성향의 목회자였다.

김재준은 해방된 한국에서 유능한 젊은이들이 사회주의에 빠지고 있는 것은 교회가 지도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나

아갈 길을 제시하기 위해 기독교 건국론을 주장했다. 김재준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하지만 교회는 창조적인 인물을 길러내어 정치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 인재를 공급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국가의 정치제도는 반드시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참된 민주주의야말로 참된 기독교적 정치제도라고 확신했다.

한경직은 새 나라의 정신적 기초는 반드시 기독교가 되어야 하며 또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사상적 근본은 성서이며, 인격의 존중, 개인의 자유, 만인의 평등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직에게 이 인간 존중과 자유, 평등은 민주주의의 이념이자 곧 기독교의 정신이었다. 한경직은 교회가 국가의 초석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는 민주주의는 국민의 각성과 도덕적 향상이 없으면 불가능한데 이런 국민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곳은 교회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의미에서 한경직이 생각하는 최고의 정치운동은 곧 복음전도였다. 그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였다.

두 사람의 사상적 차이는 1970년대에 이르러 김재준이 민주화운동에 투신하여 자유와 인권을 부르짖고 있을 때 왜 한경직은 민족복음화운동을 주도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두 사람은 생각과 방식은 서로 달랐지만 한국을 기독교 위에 세워진 더 나은 민주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열망은 같았고 이를 평생 놓지 않았다.

어찌되었든 해방 당시 한국교회가 최종 파트너로 선택한 정치인은 이승만이었다. 해방 이후 북한 지역에는 강한 기독교 박해가 있었고 많은 기독교인이 박해를 피해 월남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 통일을 우선시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한 김구, 김규식, 여운형보다는 미국과 손을 잡고 단독정부 수립에 적극적인 이승만이

친미반공적인 교계의 분위기와 잘 맞았기 때문이었다.

기독교인들은 이승만을 지지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했다. 국회의원과 정부 고위 관료로 진출하는 이들도 상당히 많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제헌국회 전체 의원 209명 중 약 24%에 해당하는 50명이 기독교인이었다. 당시 기독교 인구 비율은 0.5-2%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기독교의 과대표성이 드러난다. 김홍수 목원대 명예교수는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은 정부나 국회, 나라 전체에서 뚜렷이 감지되고 있었다. 한국인들의 기독교로의 대규모 개종과 한국 사회의 급격한 기독교적 변용에서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이승만의 건국 비전이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면서 기독교 건국론이 일정 부분 현실로 이어졌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한반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는 기독교 건국론은 이승만 정부와 한국교회의 유착으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되고 말았다. 정부는 노골적으로 친기독교 종교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교회에 큰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고 교회는 그런 이승만 정부의 절대적인 지지세력이자 선거운동 기구로 전략하여 독재에 부역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이승만 정권기 내내 기독교의 교세는 성장하고 사회적 영향력은 커졌지만 공공성과 공신력은 계속 약화되었다. 결국 이승만 정부의 종식을 알리는 4.19혁명이 발생하자 대중은 기독교를 정부와 함께 청산되어야 할 대상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기독교의 정신이 구현되는 국가를 만들자는 기독교 건국론이 국가권력과 종교권력의 야합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안타까운 일이었다.

이런 해방기의 역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나라는 기독교인들이 지배 계층을 독점하고 기독교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한경직이 꿈꾸었던 것처럼 인간의 존엄, 자유와 평등 같은 기독교적 가치가 보장되는 나라임을 교훈한다.

연주회

- 연주회: 전지희 집사 (2부 할렐루아찬양대 오르가니스트)
2월 17일(토) 오후 2시 강화도 명매림 채플



식사 제공

- 교회

2024 겨울성경학교·수련회 일정

부서	주제	주제말씀	일정	장소
영·유아부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	롬 10:9-10	2월 24일(토)-25일(주일)	서울교회
유치부	뜻을 세운 아이들	롬 12:2	2월 24일(토)-25일(주일)	서울교회
유년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로마서 12:1-2	2월 24일(토)-25일(주일)	서울교회
초등부	나는 믿음의 사람	히 11:1	2월 23일(금)-24일(토)	서울교회
고등부	하나님의 비전을 소망하는 고등부	히 11:1-2	3월 1일(금)-2일(토)	서울교회
사랑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복	마 5:1-12 6장33-34	2월 17일(토)-18일(주일)	서울교회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자	요일	1년 1독	맥체인 성경통독			
2월12일	월	레 14:33-16:34	창45	막15	요11	롬15
2월13일	화	레 17-19	창46	막16	요12	롬16
2월14일	수	레 20-22	창47	눅 1:1-38	요13	고전1
2월15일	목	레 23-25	창48	눅 1:39-80	요14	고전2
2월16일	금	레 26-27	창49	눅2	요15	고전3
2월17일	토	민 1-2	창50	눅3	요16,17	고전4
2월18일	주일	민 3-4	출1	눅4	요18	고전5

성경일독 진도표와 구약과 신약, 시편을 구속사적으로 연결하여 1년에 구약 1독, 신약과 시편 2독을 하는 맥체인방식 성경읽기표를 함께 게재합니다.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2024 청년부 필리핀 비전트립팀의 사역 현장에, 파송 선교지와 농어촌 후원교회, 비전 2030 군선교지에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역사로 함께 하소서
- 대한민국이 오직 복음 위에 통일된 나라가 되도록 이땅을 다스려 주시고, 전세계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신실한 순례자가 되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한, 현종필, 최중국
- ◇ 전도사: 박미라
- ◇ 준전임전도사: 손주찬, 전진석
-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은
- ◇ 협동목사: 양정호
- ◇ 시무장로: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연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